

## 제1회 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여러 국정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정책 기획 위원회와 원활히 결합하여 걸리지 않고 정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실속 있는 직무도 아닌 것 같은 데 기꺼이 일을 맡아 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여성 위원 수가 좀 적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할 때는 몰랐는데 해 놓고 보니 그렇습니다. 지방대에 계신 교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참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단지 참여로 끝난다면 서울에 귀 하나 열어둔 수준에 그치겠지만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하게 되고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지방 목소리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교수를 모시고 일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교수들의 국정 참여도 많았고 중요 공직도 맡았었습니다. 한때 당시 참여 자체가 철학적 윤리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사회의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활발히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싱크 탱크라는 이름으로 참여는 했는데 싱크 탱크 따로 국정 따로 였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말 한 것과는 달리 국정의 들러리를 선 게 아니었나 싶었을 겁니다.

지금 헌법상 경제 자문, 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있어 실질에 맞게 돌아가도

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문, 과학 자문도 있는데 정책기획위는 뭐하는 건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자문 기구, 구색으로 끝나는 자문기구, 마치면 출판물 하나 내고 청산하는 자문기구 등, 의미 있지만 좀 더 국정에 긴밀히 밀착해 일을 할 수 없을까하고 고심했습니다. 집행기구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걸들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위 등 여러 개 위원회 있습니다. 정부 혁신, 균형 발전, 사회 통합 위원회. 이 위원회는 옛날과 다르다고 봅니다. 실제로 업무를 기획하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T/F팀이 받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한다면 집행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이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T/F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가 정책기획위원회와 최종적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점 과제인 T/F로만 국정 전반이 포괄적으로 안 되므로 정책기획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결합시키겠습니다. 정책기획위로부터 각종 국정과제 위원회 그리고 기왕의 위원회, 정부 각 부처 다 엮어서 어느 위원회고 걸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는 일선 집행까지 함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열성에 따라 입체적인 구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흥미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구심을 형성하고, 조언에 그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중층 구조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 하고 싶은 분들은 실행기구 만들고, 조언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생각난 말이 있

습니다. 뛰면서 생각하십시오. 근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뛰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당기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경선 캠프 만들었다가 이걸로 선거 못하니까 당으로 들어가고 당에선 점령군이라 하고 당과 캠프 참모 손발 맞추느라고 하다가 얼추 맞추니 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얼추 한다 했더니 끝나고, 이제 정부 와서 손발 조금씩 맞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손발 맞추는 데 6개월 걸리고, 다 맞추려면 1년 걸린다 해도 4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옛날처럼 국정원 검찰 권력기관 가지고 언론에 압력행사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1년이면 힘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도덕적 신뢰, 말하기 민망하지만 밀천이 그거 하나입니다. 과거 정부보다 우월하다고 말 할 수 없으나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인사권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공무원, 지식인들의 도움, 국민적 지지 이거 밖에 없습니다. 표를 깨는 대통령이 아니라 표 얻는 대통령이면 마지막까지 큰 소리 칩니다. 다음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표를 얻어 주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4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생각할 땐 멈춰서 생각하고 갈 땐 가고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제일 많이 그렇고, 선생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몇 몇 분 쓴 소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와 달라고 하니깐 나오긴 나왔지만 도우면 잘 될까 하는 분들 있겠지만 믿음 갖고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관측만 하지 말고 화끈하게 도와주면 잘 될 수 있습니다.